

주일의말씀

## 군인과 군종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서하기 루카 신부  
군종담당

2002년 6월의 8.25에 온 나라가 월드컵 4강에 취해 “대~한민국.....!”이란 구호로 너도나도 하나가 되었을 바로 그때! 서해 최북단 연평도 일원에서는 갈라진 반쪽의 국토에서 적대적 의식으로 무장한 북한 해군의 공격에 의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장렬하게 전사하고, 전함은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8년 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격침되었다. 46명의 젊은 청춘들이 철혹같이 깊은 바다에서 알 수 없는(?) 적의 기습에 의해서 전사한 것이다. 알 수 없다(?)고 한것은 천안함 격침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는 이가 10명 중 3명, 믿지 않는 이가 3명, 그 나머지는 무관심, 노코멘트... 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습 답답한 현실이지만 일단 넘어간다. 그러나 46명의 젊은 청춘은 어찌하란 말인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울림은 없는가...? 사건이 터진 후 그리고 그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의 하염없는 슬픔을 달래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 백성이 이를 잊지 말기를 기도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알 수 없는(?) 적의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군인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길을 가다보면, 또는 기차역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에 지나다 보면, 휴가 중인 병사들을 볼 수 있다. 일복무니 전투복의 육군도 있고 파란 근무복을 입은 공군도 있고 하얀 세일러복의 해군, 팔각모의 해병대도 볼 수 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다를지라도 그

들은 조국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이 땅의 군인들이다. 또한 그들은 바로 한때 우리 자신이었고 우리의 아들이며, 친구이며, 연인들이기도 하다. 결국 평화는 우리들에 의해 지켜져 왔고, 우리들이 지키고 있으며, 우리들에 의해 지켜질 것이다. 그렇다면 천안함 사건으로 숨져간 46명의 해군 천안함 승조원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다. 군인은 강력한 무기와 거듭되는 훈련으로 유사시 적의 공격에 대비하며 현실의 평화를 지키는 자이다. 백전백승의 신화를 세워 나가다가도 단 한 번의 패배가 조국을 위기 속으로 몰고갈 수 있기에, 고단함 속에서도 경계와 작전수행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다. 그래서 군인은 무엇보다 사기진작이 그들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기에 중요한 요소임을 안다. 사기진작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의 신뢰와 격려에서 비롯된다. 우리 군인들을 믿어주시기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한다.

군인주일을 맞아 지켜야 할 현실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두 번째 군복무를 하고 있는 90여 명의 군종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외로움에 힘겨워 하고, 고단한 반복 훈련과 한 치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경계임무를 수행하느라 지친 그들을 위로하다 보면 군종사제들도 지칠 수 있기에, 그런 군종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2010년 군인 주일을 맞이한다. 

생명의말씀

너희가 믿음이라도 있으면! 루카 17,6 참조  
하바 1,2-3; 2,2-4 2티모 1,6-8,13-14 루카17,5-10.

### 3.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 연령회의 활약

문화홍보실

지금 우리 교구에는 본당마다 연령회, 또는 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팎에 상조회가 많아서 예전만큼 활동이 현저하지 않은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연령회원들의 성심 어린 봉사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전교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구에 사도직 단체가 많지만 연륜을 따지자면 역시 연령회만큼 오래된 조직이 드물 것입니다. 이 연령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대구 지방에는 1880년부터 연령회가 존재해 왔다고 전해집니다. 요즘에는 장의 업체에 맡길 수가 있지만 그 시절에는 가족과 이웃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예 일손을 구할 수조차 없어서 시신을 그냥 묻거나 심지어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병에 걸릴까 두려워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 사망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병자를 찾아다니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 준 용감한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연령회원들이었습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료 봉사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친척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연령회원들이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이득을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천주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가 비록 서양에서 들어온 낯선 종교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도록 가르친다니 좋은 종교일 것이 틀림없다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승 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고, 정작 그 정승이 죽으면 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나 이득이 있는 일에는 많은 이가 쉽게 함께 하지만, 어렵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참된 벗들만이 도와줍니다. 아무리 장례 서비스가 발달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사람과 남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어려운 사정을 당해 슬퍼하는 이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혹시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어찌 모른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배운 사랑을 슬퍼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연령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게 아니데

박성규 엘리지오





## 오늘의 미사

군인 주일  
연중 제27주일

### 입당 성가

402 세상은 아름다워라

### 화답 송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봉헌 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 영성 채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이시네.

### 파견 성가

438 주께 감사드리자

## 영성의 향기

### :: 하느님의 평화

라틴 아메리카 빈민들의대부였던 브라질의 카마  
라대주교가 미국의 한대학에서 강론을 마치고 질  
문을 받았습니다. “신부님은 암살 위협과 정부  
의 폭력의 위협을 받았는데 가장 힘든적(敵)  
은 누구였습니까?” 대주교님은 손을 들어 자



기 가슴을 가리키며 “나 자신이 가장 고약한 적이고 가장  
두르기 힘든 적입니다. 이 가슴이 평화를 위한투쟁의 가장격렬  
한 전쟁터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란 우  
리 각자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  
를 베풀고 자기를 용서하고 자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하느  
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이길 때 우리는 평화를 내뿜을 수 있  
을 것입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평  
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평화가 당신 가슴에 충만해야 합니  
다. 하지만 그런 내면의 평화란 세상의 복잡하고 고통스런 문  
제들을 피해 간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고  
통 속으로 뛰어 들어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웃들이 느끼는 두려  
움을 함께 나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평화는 하느  
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인식과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라는 소명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대주교님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수녀 -

## 짧은 글 - 깊은 생각

### 버려진 자전거



1943년의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던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인 뒤 ‘황소머리’라는 이름의 작품  
을 만들었습니다. 50여 년이 지나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자  
그마치 233억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피카소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자전거를 수백억이 넘  
는 고가의 미술품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명장의 손을 거치면 뛰

어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작고 하찮게 느껴지더라도, 나에게서는 최고의 명장이신 하느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 율거은 글입니다. -

★ 모임 / 행사 ★

시편 평가연수(☞김정선)발성법(박재연) 회비:1만원  
• 일시:10.3(일) 15:00, 가톨릭 음악원(255-4847)

폐제기도회

• 일시:10.9(토) 20:00, 삼덕 젊은이 성당

이집트 이스라엘 해외성지순례

• 일정: 2011. 1.(목)~14(금)  
• 신청:10월말 까지 선착순 30명  
• 문의: 평신도 신학교육원 660-5104

★ 성소 / 파정 ★

곤벤투알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둘째 주일 14:00, 월배수도원  
• 문의: 010-5064-7467

예수성심시녀회 김마리아수녀 개인전

‘하늘 위의 하늘’

볼리비아 및 해외선교 기금마련

• 일시: 10.6(수)~11(월) 10:30~20:00  
• 장소: 대백 프라자 갤러리  
• 문의: 620-5221~2

전교가르 멜수도원 ‘베드라’ 성소모임

• 일시: 10.24/11.21/12.19(일) 14:00~17:00  
• 장소: 대명동 ‘가르멜수도원’  
• 문의: 010-2646-7765(www.camis.org)

★ 모 집 / 교 육 ★

10월 영어성경 공부반 모집

• 개강: 10.5(화)10:00~12:00, 월2만원  
• 화·코린토 전서, 신명기, 목·마태오, 창세기  
•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취득반) 5기 개강  
• 일시: 10.4~11.12(월~금), 주5회

• 접수: 10.4(월)까지, 내방접수  
• 장소: 교구청 교육원가동 3층(255-7221)  
• 2010년도 요양보호사자격국가시험대비반

환경위원회 명상 제초반 개설

• 개강: 10.5(화) 매주 화, 금 14:00~16:00  
• 수강료: 6만원(2개월)  
• 문의: 010-5250-3523

2011년 백합어린이집 원아모집

2011년에 귀염둥이를 위한  
입학설 명회를 합니다.

• 일시: 10.19(화) 10:30  
• 장소: 백합어린이집 강당(256-6862)

제6기 대구대교구 가톨릭어머니학교개설

• 일시: 10.21(목)10:00~15:10, 매주목요일(5주간)  
•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 대상: 자녀를사랑하는어머니면누구나가능  
• 문의 및 신청: 743-7010, 선착순42명

보다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초대

• 대구282차:10.22(금)19:00~24(일)18:00  
• 장소: 한티피 정의집, 문의: 473-5712  
• ME주말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대화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선교, 나도 잘할 수 있다!

• 일시: 10.23(토) 10:30~16:30  
• 장소: 계산문화관 3층 선교대학  
• 지도: 이판석 신부  
• 선착순 50명 무료 신청  
• 문의: 가두선 교단 781-6100

성령세미나 (2박3일)

• 일시: 10.29(금)~31(일)  
• 장소: 고령 월막피 정의집

• 신청비: 12만원  
• 문의 신청: 551-9111

<http://www.dgcr.or.kr/>

적은 돈으로 큰돈 버는

대가대 부동산경제매테크과정

• 개강: 9월 중 8주 과정(수, 목)  
• 1:1멘토링교육, 무료재수강 가능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캠퍼스  
• 문의: 568-9800/ 010-4161-4443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IVY리그 펜실바니아 대학 제휴  
외국협력대학 유학시 학점인정  
이수후 공립학교 영어전문강사 응시가능  
• 문의: 526-0121(<http://tesol.cu.ac.kr>)

37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모집

•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클럽반회  
• 초·중·고 1.2~23(일) 3주, 정규학교  
대·일반: 1.2~213(일) 6주 or 장기  
• 과달루페수녀원 or 홈스테이  
•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가톨릭문화관 내 사무실 임대(1층 8평)

• 문의: 사무장 011-9579-7382

★ 안내 ★

안전하고 편안한 귀가,

가톨릭 호출 택시가 있습니다.

053-551-1004(오오 하느님 천사)

1.3운동실천노트 성경읽기표 수정본 배부

1.3운동실천 노트 중 성경읽기표에 오류  
가 있어 다시 배부하오니 수정본을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사                   | 일 시               | 장 소        | 미 사                   | 일 시               | 장 소               |
|-----------------------|-------------------|------------|-----------------------|-------------------|-------------------|
| 말할수원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 10월 4일(월) 오전11시   | 계산주교좌성당    | 지속적인성체조배회 미사          | 10월 4일(월) 오후10시   | 한티순례자의집           |
| 5대리구 성소 후원회 월례미사      | 10월 4일(월) 오전11시   | 신명성당       | 한국OS어린이마을 후원회<br>월례미사 | 10월 6일(수) 오전1시30분 | 한국OS어린이마을<br>2층강당 |
| 경주지역 군중 후원회 월례미사      | 10월 4일(월) 오전11시   | 성동프리텔41 3호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위한 미사      | 10월 7일(목) 오후2시    | 성모당               |
| 꾸르실리스파 월례미사           | 10월 4일(월) 오후7시30분 | 꾸르실리 교육관   |                       |                   |                   |

3대64년 전통  
다이아몬드 예물전문

**미성당** 귀족속  
보석강령 무료서비스 실시, 심플 다이아몬드  
커플링 행사 (가장작을 받으세요)

미국보석학회 공인 국제보석강령사 박재현(비오)  
629-9090, 011-541-5415

알산  
순환  
도로

알산  
순환  
도로

미성당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식욕부진, 성장  
• 난치성 아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대표원장 김 성 철 (비오)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8번 출구  
☎ 592-1275, 593-1275

도우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대표 양 말 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성가정을 위한 결혼 정보

성가정결혼상담소

진실한신자와의 만남의장  
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입구

이 원 의 료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판매

협합계,혈당계,혈체어,안마기,뜸,부항  
번 상 밤(도미니코) 김 인 숙(아나타)  
경대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효경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복지센터 운영)

◎ 교육생 모집 ◎

♣국가자격증 무시험 자격취득  
♣신규반, 경력자반, 재직자(무료)교육반  
♣자격증반(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24호선: 579-067, 474-1571; 564-1577, 475-1577  
서비스이용문의: 010-3153-9057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예리)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kclinic.com](http://www.me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결혼상담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미혼, 만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7~8  
서울 - 02)579-3889  
02)338-0788  
<http://mj.ms.co.kr>